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정보요구도

김 효 정*(인제대학교 가족 · 소비자학과 교수)
김 미 라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근 들어 플라스틱 식품포장재로부터 용출되어 나오는 내분비 교란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 환경호르몬이란 사람, 동물의 호르몬 움직임을 어지럽히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컫는 말로, 얼마 전 시판중인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스틸렌다이머와 스틸렌트리머가 검출됐다고 발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환경호르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대구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조금 또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51.0%, '들은 적은 있으나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7.7%, 그리고 '들은 적이 없다'는 11.3%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호르몬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는 '식품포장재의 환경호르몬 방출'이 5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패류의 환경호르몬 오염'이 26.7%, '살충제나 제초제'가 1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호르몬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순서를 살펴보면,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에 대한 비율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호르몬 방출물질 또는 오염물질(17.6%)', '환경호르몬 오염실태(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관심있음'이 43.5%, '대체로 관심있음'이 37.0%로 나타나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는 대체로 높았다. 한편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보요구도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함'이 55.5%, '조금 필요함'이 32.4%로, 많은 응답자들이 잔류농약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도가 잔류농약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나 일회용품 등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보제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